

강남 최대규모의 서점 '월드북 센터'

현대적 감각으로 휴식과 문화의 공간 마련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강남'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이든 꽤 특별한 의미를 지닌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가장 서울적인 곳 강남은 경제적 여유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적 변화의 총체적 파노라마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은 없고 물질만 있는 소비문화의 중심지쯤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특히, 책 혹은 출판문화에 관한 한 그곳은 거의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강남땅에 한강 이남에선 최대규모가 될 대형서점이 들어선다. 오는 22일 강남의 요충지 신사동 네거리에서 개장하는 '월드북센터'가 바로 그것. 서점 하나가 강남문화의 전체적 의미망을 새로 편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서점이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월드북센터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평당 5천만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땅에 부지 150평, 연건평 750평 규모로 임대 아닌 최초의 서점전용 단독건물이 들어서서 '사건'의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는 것이 월드북센터건립을 지켜보는 주위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현대적 감각의 외양이 돋보이는 이 월드북센터는 공사 시작 6개월만인 현재 거의 모든 공정이 마무리상태에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경비만도 대략 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대표 張明浩씨(36)의 말. 지하의 경우 레코드점과 스페코너 등 편의 시설로 꾸며져 고객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1층은 문구 펜스 잡지

오는 22일 개장하는 '월드북센터'는

연건평 750평 규모로

강남최대의 대형서점이라는 점

이외에도, 임대 아닌 최초의 서점전용

단독건물에 들어선다는 점에서도

주위의 주목을 끈다.

특히, 소비문화의 중심지쯤으로 여겨지던

신사동 네거리에 자리한다는 사실의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판매 및 연극 등 각종 공연행사의 예매와 도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나머지 2층에서 5층까지의 매장은 컴퓨터·종교·예술도서 등 각 분야별 도서를 진열, 판매할 계획이다.

11월22일로 예정된 개장일을 앞두고 거래처 개설과 사원모집 그리고 도서인수작업에 쉴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명호씨에 따르면, 월드북센터의 경영방침은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영업을 포함한 업무전반의 전산화, 둘째는 인적자원의 고급화, 셋째로는 매장의 현대화를 들 수 있는데, 기존의 서점업계가 안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바코드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전산화와 매장의 현대적 시설은 전문가를 일본에 견학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의 고급화



장명호 사장.

만큼은 수월치 않다고 한다.

"서점업이 타산업과 병행해서 발전하려면 가장 시급한 일이 고급인력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점종사인구가 전국적으로 따져 봐야 1천여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업무의 전문화도 안된 상태에다가 적당한 대우도 못받는 실정이라 경영방침의 하나로 인력의 고급화를 내세웠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경력사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사원의 학력을 대졸로 못박는 원칙을 단행했다고 전하는 그가 낯설기 짝이 없는 서점계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6년전의 일.

당시 나름대로의 계획을 구상하고 시도하려 했으나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그래도 '책'을 보기만 하면 즐거워지는 묘한 성격 탓에 주위의 적극적인 만류를 뿌리친 그는, 결코 유망사업일 수 없는

서점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3, 4개의 업체를 모두 정리해 마련한 월드북센터의 위치선정도 그의 고집스런 성격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타고난 장사꾼임을 자부하는 장씨가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 동기는 오히려 단순하다. 책을 좋아할 뿐더러 15년을 살아온 강남이 향락일변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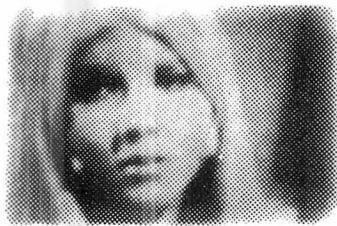
앞으로 서점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와 적극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서점의 대형화에 반대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서점의 대형화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형서점으로 인해 중소규모의 서점영업에 타격이 간다는 이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형서점이 발휘하는 효용, 예를 들면 시간적·공간적 서비스를 통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같은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문제가 노출되겠지만,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한다면 중소기업 역시 환영할 일이 아닐까요?"

어쨌든 과소비 현장에 뛰어들 월드북센터가 창업취지에 맞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관심과 건설한 경영이 보조를 맞춰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최태원 기자

국내최초공개!
"우주 여인이 지구에 왔습니다."



농부<마이어>가 촬영한 플레이어테스 성단에서 온 우주여인

독자 여러분 지금 즉시 신비한 UFO 비행음을 들어 보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들을수 있습니다.)

전자식 전화기로 152번을 누르면 사서함 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다시 8159번을 누르면 우주여인<셈야제>의 UFO 비행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은 (02) 152번을 누르세요.>
● MBC TV에 방영된 화제의 농부<마이어>와 우주여인<셈야제> 일본 N.TV에서 농부<마이어>가 살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 주에 가서 움직이는 UFO를 촬영 취재하며 세계최초로 방영함으로써 전세계를 놀라게 한 우주여인<셈야제>이야기! 사막한 현대인에게 플레이어테스 성단의 여인이 얘기하는 놀랍고도 신성한 사연들.

● 화제의 장기 베스트셀러 **그대, 반짝이는 별을 보거든...**

—우주여인<셈야제>와 농부<마이어>이야기—
● 농부<마이어>의 충격 ● 예수 생전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 ● 현재 성경은 위서(僞書)인가 ● 인류조상은 누구인가 ● 밝혀지는 태양계의 비밀 ● 바울 6세 교황은 암살되었는가 ● 우주인의 사랑과 생활 ● 예수의 부활은 거짓인가 ● 예수 탄생의 비밀 ● IBM보조겔 박사의 증언 ●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NASA·IBM 과학자들의 사실 증언수록— 그곳으로부터 무한한 행복·무한한 사랑·무한한 아름다움·무한한 가치·무한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셈야제>
● 오다가 오시아 역음 ● 정우인 옮김 ● 사진제공 농부 마이어 ● 한국어판 국내 독점계약 출판* 신국판/242면/값3,500원

도서주문 전영서적 : (02) 272-5871
을지서적 : (02) 757-8991

시어사 대표전화 : (02) 549-6817
F A X : (02) 549-6816